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in Children's School Maladjustment and Related Variables

이경화(Kyeong Hwa Lee)[1)]
손원경(Won Kyoung Son)[2)]

ABSTRACT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maladjustment and related variables were examined in 371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maladjustment was ascertained by revised the School Adjustment Test(Lim, 1993; Song, 1999). After analysis of differences in internal locus of contro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the school maladjusted and adjusted groups, the study buil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school maladjustment-related variables goodness of fit was tested with LISREL 8 for Window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internal locus of contro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by level of school maladjustment. Internal locus of contro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both directly and/or indirectly influenced school maladjustment. These variables explained 64% of the variances in school maladjustment.

Key Words : 학교부적응(school maladjustment), 내적 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 학업스트레스(academic stresses),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

Ⅰ. 서 론

주어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onzales, Tein, Sandler, & Friedman, 2001).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의 규범에 대하여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위를 하며 자신도 만족하는 상태를 적응이라고 한다면, 부적응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부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욕구·감정·사상 등이 사회의 규범에 용납되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황희련, 2003).

[1)]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2)]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Kyeong Hwa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ung National University 599-1 Daeyeon-dong Nam-gu Busan 609-737, Korea
E-mail : khlee@pknu.ac.kr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으로, 학교에서의 적응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삶의 요소라 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바람직한 사회·정서적 행동을 보이는 것을 학교적응이라 할 수 있는데(문은식, 2002; 민하영·권기남, 2004; Berndt & Ladd, 1989), 학교환경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감정에 초점을 두었던 Ladd, Kochenderfer, Coleman(1996)은 이러한 학교적응이 아동의 이후 교육적 진보의 중요한 전조가 된다고 보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학교부적응은 개인의 욕구가 학교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과 같은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동은 학교의 교육적 가치, 규범 그리고 질서에 일치되지 못하는 일종의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학교에서의 부적응 상태에 있는 아동은 불안, 절망, 소외감과 함께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우며, 정서적인 문제나 적대감, 공포감, 경쟁의식, 실패감이 누적되어 또 다른 부적응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김동배·권중돈, 1998).

여러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러한 학교부적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동은 학교부적응의 증후로 학교공포증, 학교거부증, 학습문제, 과잉행동 등을 나타내기도 하며, 불만, 절망, 불평, 무능력, 자포자기, 부정적 감정이나 공격적, 파괴적 혹은 지극히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자아개념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경고한다(김미영, 1998; 김소현, 2000; 한미현, 1996; Barbe, 1983).

아동의 학교부적응와 관련하여 그 예측변인 혹은 결과로써 학업성취가 주로 연구되어 왔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아동의 개인적·심리적 특성과 가정 및 학교와 같은 사회적 변인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과 아동의 학교부적응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Connell, Spencer, & Arber, 1995; Grolnick, Kurowski, & Gurland, 1999; Harter, 1996; Wentzel, 1997).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학교부적응 관련 연구를 아동의 학업성취와 개인적 차원의 특성, 환경적 차원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학업성취와의 관련 하에서 학교부적응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지적 능력 이외의 보다 다양하고 중요한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학업성취와 아동의 학교적응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는데,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학교에 대한 적응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오윤자(2003), 이상필(1990), 최순복(1985) 등의 연구가 그 예이다.

다음으로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성, 연령,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과 같은 아동 개인적 심리적 특성을 관련 변인으로 두고 아동의 학교적응을 고찰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김춘희, 2000; 이경혜, 2002; 이옥주, 2003; 이훈진, 1999; 임정순, 1993; 장호성, 1987; 차유림, 2001; 한미라, 1997).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개인의 의사결정, 성취동기, 태도 변화의 예측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개념 중 하나인 통제소재(locus of control)가 학교부적응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다.

자신의 행동과 이에 따르는 강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인 통제소재는 어떤 사건이든 자신의 행동결과로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보는 내적 통제(internal locus of control)와 자기의 행동과는 관계없는 것

으로 보는 외적 통제(external locus of control)로 Rotter(1966)에 의해 분류되어 왔으며(한상희, 1996, 재인용), 통상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을 양극에 둔 한 연속선상에서 그 정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변화, 발달해간다고 볼 수 있다.

내적 통제소재의 성향을 지닌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내적인 능력이나 노력에 있다고 지각하며,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이나 욕구좌절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적응적인 가치관, 태도, 행동, 반응 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 통제소재에 대한 연구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통제소재가 내부로 향하는 아동은 통제소재가 외부로 향하는 아동보다 더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며, 더 적극적이고 좌절에 더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김선미, 1994; 민하영, 2002; 민하영 · 유안진, 2001; Goswick & Jones, 1981; Hart, Hoffman, Edelstien, & Keller, 1997; Pittman & Pittman, 1979; Werner & Smith, 1992).

이러한 내적 통제소재의 성향은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고 있는데, 권숙경(1991), 김병선(1998), 김춘례(1992), 변혜종(1990), 정병철(1993) 등에 의하면 내적 통재소재 성향을 지닌 아동이 학업에서도 높은 성취를 나타내고, 학교에서도 보다 잘 적응하는(권일현, 2002) 것으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부모의 지원, 긍정적인 친구관계, 교사의 지원, 부모 · 교사 · 친구관련 학업스트레스 등의 요인을 포함한 아동의 환경적 변인과의 관련 하에서 학교부적응을 다루는 연구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김경숙 · 조옥귀, 2004; 김연순, 2001; 민하영 · 권기남, 2004; 소현 · 정영숙, 2003; 차유림, 2001). 특히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친구, 학교와 같은 주변 환경요인으로부터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학교부적응과 관련하여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과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이성순, 2004; 이시은, 1997; 한미현, 1996), 이러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낮아지며 학교생활 적응도 어렵다는 연구결과들(노미숙, 2003; 서경종, 1998; 송창용, 2003; 이지연, 2002)이 그 예이다.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는 학교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그 일이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 즉 학업스트레스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부모나 교사,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학습을 지원하는 부모의 행동이 초등학생의 학업효능감 및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문은식 · 김충희, 2002), 부모의 성취압력을 아동이 스트레스로 지각할 경우에는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연자, 1995; 유성은, 2002; 최해수, 2001).

또한 Berndt와 Ladd(1989), Dubow와 Tisak (1989), Ladd 등(1996)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친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우호적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교의 요구에 대처해가는 능력을 촉진시켜주며, 학업성취 면에서도 도움을 준다. 반면, 친구

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 경우에는 학급에서의 활동성이 낮아지고 소극적이 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Laible, Carlo, & Raffaelli, 2000). 이러한 국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김명희(2002)의 연구에서도 학교스트레스 경험의 일반적 경향이 친구를 의식하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유선이(1999)와 황경미(1998)는 친구에 대한 지각 혹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소개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 학교부적응에 관련된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로는 학업성취를 비롯하여 통제소재와 같은 개인적 특성, 아동의 환경으로부터 지각하게 되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다수 연구에서 내적 통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혹은 내적통제와 학교적응·부적응의 관계,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또는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부적응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단순상관 및 집단간 차이검증의 통계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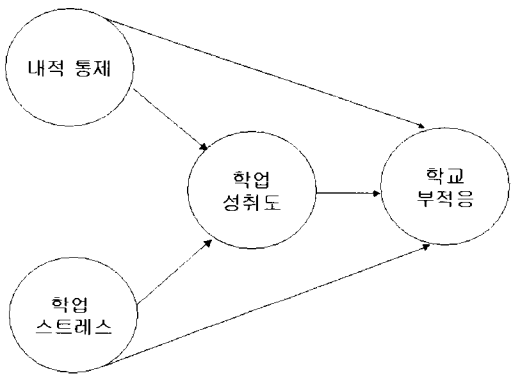
이렇게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을 독립적, 개별적으로 분석함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내에서의 상호적인 관계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 상대적 설명력을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들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비롯하여 개인적 차원에서의 내적 통제소재 성향과 환경적 차원에서의 교사, 부모, 친구 관련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학교부적응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인과적 구조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학교부적응에 따른 내적 통제,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의 차이 및 측정 변인들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들(내적 통제소재,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그림 1>)의 적합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인들간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그림 1〉 학교부적응 및 관련 변인의 가설적 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N교육청 관할의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N교육청은 사회경제적 상황 및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31개 초등학교를 가(6개교), 나(10개교), 다(11개교), 라(4개교) 급지로 구분

〈표 1〉 연구대상 현황

성별 \ 학교급지	가	나	다	라	계(%)
남학생	91	43	27	41	202(54.4)
여학생	81	29	28	31	169(45.6)
계	172	72	55	72	371(100)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지별로 각 1개교의 5학년 2개 학급을 무선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실시가능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중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11월 25일부터 2004년 12월 4일에 걸쳐 학업성취도 검사, 내적 통제소재 검사, 학업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학교부적응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일부 생략되어 있는 24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최종 분석에는 총 371명 아동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소속 학교 및 성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의 '학업성취도'는 2004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여 부산시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연구대상 아동이 얻은 국어와 수학시험의 평균 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제되어 있는 국어와 수학교과의 성취 점수를 대표적인 학업성취도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국어와 수학 점수 각각을 표준점수(T점수)로 환산, 합산한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2) 내적 통제소재 검사

'내적 통제소재'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개인의 내부요인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성향으로서, 내외 통제소재 검사는 민하영(1999)이 제작한 내외 통제소재 척도 중 내적 통제소재에 해당하는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5점 평정척도형으로 구성하였다. 반응 점수는 최하 7점에서 최고 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 추정에 의한 검사문항의 타당도 및 Cronbach's a 계수에 의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학업스트레스 검사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본 연

〈표 2〉 내적 통제소재 검사의 구성

요인 (문항수)	문 항	문항-총점간 상관	Cronbach's a
내적 통제 소재 (7)	•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59***	.81
	• 좋은 평가나 칭찬을 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64***	
	•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68***	
	• 어떤 운동이건 연습을 충분히 하면 잘할 수 있다.	.59***	
	•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58***	
	•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64***	
	•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55***	

***p<.001

구에서는 Rahe와 Holmes의 사회재적응 평가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Girdano와 Everly가 제시한 사회심리학 요인검사, Elkind가 제시한 스트레스 요인이론에 근거하여 박용식(1996)이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업스트레스 검사 총 60문항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박용식(1996)의 연구에서 검사문항의 신뢰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Cronbach's α=.86, 교사관련 학업스트레스 Cronbach's α=.85, 친구관련 학업스트레스 Cronbach's α=.88).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는 부모 관련 9문항, 교사 관련 8문항, 친구 관련 6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반응 점수는 최하 23점에서 최고 115점까지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상관계수 추정에 의한 검사문항의 타당도 및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학업스트레스 검사의 구성

요인 (문항수)	문항	문항-총점간 상관	Cronbach's α
부모 관련 (9)	• 부모님이 성적 이야기를 할까봐 두렵다.	.64***	.83
	• 부모님이 기대하는 성적을 내지 못해 고민이다.	.61***	
	• 부모님이 계실 때 방에 들어가 공부하는 척 한다.	.42***	
	• 부모님 강요에 의해 학원에 다니는데, 가기 싫을 때가 많다.	.34***	
	• 부모님께서 공부만 하라고 하여 불만이다.	.22***	
	• 부모님께서 사 주신 문제집을 아무렇게나 푼다.	.56***	
	• 부모님께서 '공부'나 '성적' 소리만 하면 짜증이 난다.	.43***	
	•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다.	.57***	
	• 부모님께서 형제나 다른 친구와 성적을 비교하기 때문에 형제나 친구를 미워한 적이 있다.	.59***	
교사 관련 (8)	• 선생님께 야단을 맞을까봐 시험 보는 것이 두렵다.	.56***	.87
	• 선생님의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다.	.47***	
	•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나를 지명하실까봐 불안하다.	.47***	
	• 선생님이 만약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다.	.42***	
	•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면 짜증이 난다.	.52***	
	• 선생님이 부르시면 성적 이야기를 할까봐 겁이 난다.	.35**	
	• 선생님은 착한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44***	
	•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64***	
친구 관련 (6)	• 나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가 밉다.	.58***	.81
	•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 못살게 군다.	.55***	
	•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 선생님도 미워진다.	.49***	
	•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와는 놀고 싶지 않다.	.61***	
	•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상을 받으면, 그가 싫어진다.	.59***	
	•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선생님께 야단맞으면 고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70***	
전 체(23)			.89

**p<.01 ***p<.001

4) 학교부적응 검사

학교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임정순(1993), 송미원(1999) 등의 제작 · 수정한 검사 문항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에 대한 부적응, 친구에 대한 부적응, 수업에 대한 부적응, 학교 규칙에 대한 부적응의 4개 하위영역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하 24점에서 최고 120점까지 산출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 추정에 의한 검사문항의 타당도 및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81명의 예비검사(2004. 11. 1 - 2004. 11.5)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검사문항을 발췌 및 수정 ·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용된 검사문항에 대해서는 문항-총점간 상관계수 및 Cronbach's α 계

〈표 4〉 학교 부적응 검사의 구성

요인	문 항	문항-총점간 상관	Cronbach's α
교사 (6)	• 나는 선생님과 대화를 하기 힘들다.	.36**	.78
	• 길에서 선생님을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38**	
	•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없다.	.44***	
	• 선생님이 너무 딱딱하고 명령적이라고 생각한다.	.48***	
	•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6**	
	•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없다.	.52***	
친구 (6)	•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55***	.82
	•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 할 친구가 없다.	.41***	
	• 친구 집에 놀러가지 않거나 우리 집에 친구들이 놀러오지 않는다.	.51***	
	•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없다.	.57***	
	• 나는 학급에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없다.	.34***	
	• 친구가 없어서 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면 좋겠다.	.47***	
수업 (5)	• 나는 수업시간이 지겹다.	.69***	.78
	•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66***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62***	
	•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 중에는 재미없는 것이 많다.	.72***	
	• 나는 수업시간 중 딴 생각을 많이 한다.	.72***	
규칙 (7)	• 나는 교실에서 잘 떠든다.	.45***	.81
	• 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통행을 하지 않는다.	.38***	
	• 나는 당번활동을 소홀히 한다.	.47***	
	•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	.61***	
	•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가 있다.	.61***	
	•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62***	
	• 학교는 질서와 규칙을 강조해서 부담스럽다.	.59***	
전 체(24)			.88

**p<.01 ***p<.001

수를 산출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탐색을 위하여, 학교부적응 측정 점수를 기준으로 상·하위 각각 약 27%[1]를 추출한 후에 학교부적응의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 내적 통제성향,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였고, 내적 통제소재,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 학교부적응을 측정하는 하위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Windows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와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Windows용 LISREL 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의 학교부적응 및 관련 변인들의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구조내 변인들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학교부적응에 따른 관련 변인의 차이 및 측정 변인간 관계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작업으로, 학교부적응 검사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 내적 통제소재,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학교부적응의 정도가 낮은 집단(집단1)이 높은 집단(집단2)에 비해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t=3.98, p<.001). 학업스트레스에 있어서는 학교부적응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표 5〉 학교부적응에 따른 내적 통제소재,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의 차이

종속변인	하위변인	집단	M	SD	t
내적 통제소재		1	4.28	.62	3.98***
		2	3.90	.72	
학업 스트레스	부모	1	1.61	.49	-9.75***
		2	2.38	.63	
	교사	1	1.46	.34	-12.97***
		2	2.51	.74	
	친구	1	1.16	.36	-7.72***
		2	1.79	.74	
	전체	1	1.44	.30	-14.16***
		2	2.27	.51	
학업 성취도	국어	1	51.45	8.20	3.26**
		2	46.19	13.86	
	수학	1	51.82	8.06	3.62***
		2	46.25	13.13	
	전체	1	51.63	7.20	3.67***
		2	46.22	12.87	

**p<.01 ***p<.001

※ 집단1- 부적응도가 낮은 집단(n=103),
집단2- 부적응도가 높은 집단(n=99)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14.16, p<.001), 이러한 차이는 하위 측정 변인인 부모(t=-9.75, p<.001), 교사(t=-12.97, p<.001) 친구(t=-7.72, p<.001)와 관련된 학업스트레스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의 경우에는 학교부적응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우수하며 그 차이가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67, p<.001). 즉 학교부적응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내적 통제성향과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업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이론 구조의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변인들간 상관계수와 측정 변인 각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처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부모 관련, 교사 관련, 친구 관련의 3개 하

1) Kelly(1939)의 집단 분류에 대한 통계적 제안을 참고로 하였다.

〈표 6〉 측정 변인의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n=371)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1.00									
2	-.05	1.00								
3	-.05	.54***	1.00							
4	.01	.43***	.45***	1.00						
5	-.05	.85***	.85***	.71***	1.00***					
6	.19***	-.21***	-.32***	-.05***	.73***	1.00				
7	-.25***	.33***	.46***	.28***	-.13*	-.14**	1.00			
8	-.14**	.34***	.37***	.25***	-.20***	-.20***	.40***	1.00		
9	-.20***	.41***	.59***	.33***	-.25***	-.29***	.59***	.40***	1.00	
10	-.11*	.28***	.35***	.26***	-.12*	-.11*	.49***	.10	.50***	1.00
M	4.08	2.02	1.96***	1.45***	50.00***	50.00	1.98	1.87	2.30	2.61
SD	.65	.70	.63***	.67***	10.00***	10.00	.68	.70	.81	.71

*p<.05 **p<.01 ***p<.001

※ 측정 변인 : 1. 내적 통제 2.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3. 교사관련 학업스트레스 4. 친구관련 학업스트레스 5. 국어성적 6. 수학성적 7. 교사에 대한 부적응 8. 친구에 대한 부적응 9. 수업에 대한 부적응 10. 학교규칙에 대한 부적응

위요인에 의해 측정되었고, 학업성취도는 국어성적과 수학성적의 2개 하위요인에 의해, 그리고 학교부적응은 교사에 대한, 친구에 대한, 수업에 대한, 학교규칙에 대한 부적응의 4개 하위요인에 의해 측정되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이 .43～.54로, 학업성취도의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은 .73으로, 학교부적응은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이 .10～.59로 나타났으며, 친구에 대한 부적응과 학교규칙에 대한 부적응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측정 변인들간에 상호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2.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간 구조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에 대한 가설적 구조모형이 변인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x^2 검증을 실시하고, 적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 : GFI), 수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AGFI), 비표준적합치(non-normed fit index : NNFI), 비교적합치(comparative fit index : CFI),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RMSEA)을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학교부적응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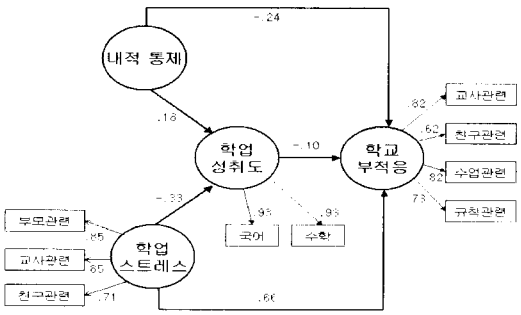
적합도	x^2	df	GFI	AGFI	NNFI	CFI	RMSEA
값	71.69**	20	.96	.91	.95	.95	.08
기준			>.90	>.90	>.90	>.90	<.05

**p<.01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 중 $x2$값은 적을수록, GFI와 AGFI, NNFI, CFI는 1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5보다 그 값이 적을 때 모형이 수집한 자료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의 x^2검증 결과에서는 그 값이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x^2=71.69, p<.01),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GFI(=0.96, >.90), AGFI(=0.91, >.90), NNFI(=0.95, >.90), CFI(0.95, >.90)도 각각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이순묵, 1990; Bentler & Bonett, 1980)에 부합되었다.

Browne과 Cudeck(1993)의 기준에 의하면, 모든 오차의 평균을 나타내는 RMSEA는 일반적으로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로 그리고 .10보다 클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08로 나타나 보통의 적합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x^2값과 그 외 적합도 수치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적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의 최종 경로

〈표 8〉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간 영향관계

경 로	B	SE	β	R^2
내적 통제소재 → 학업성취도	.29	.06	.18**	14%
학업스트레스 → 학업성취도	-.48	.09	-.33**	
내적 통제소재 → 학교부적응	-.23	.02	-.24**	
학업스트레스 → 학교부적응	.74	.06	.66**	64%
학업성취도 → 학교부적응	-.14	.02	-.10*	

*p<.05 **p<.01

이러한 모형에 입각하여 아동의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의 최종 관계 경로 및 변인간 상대적 영향력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2>, <표 8>과 같다.

<그림 2>와 <표 8>에 제시되었듯이,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대해 관련 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적 통제소재와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가 학교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내적 통제소재와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학업성취도와 학교부적응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학업스트레스(-.33)가 내적 통제소재 성향(.18)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설명변량은 14%로 나타났다. 학교부적응에 대해서는 학업스트레스(.66), 내적 통제소재(-.24), 학업성취도(-.10)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대해 내적 통제소재,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가 가지는 전체 설명변량은 64%로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아동의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들, 즉 학교부적응과 내적 통제소재,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도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부적응과 관련 변인간 가설적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내적 통제소재와 학업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학업성취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내적 통제소재와 학업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학업성취도 또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변인들 중 학업스트레스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련 변인들 전체가 학교부적응에 대해 64%의 높은 설명력을 가짐으로써, 학교부적응에 있어 내적 통제소재,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학업성취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내적 통제소재의 성향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고(김병선, 1998; 김춘례, 1992; 변혜종, 1990; 정병철, 1993), 학교적응도 높다(권일현, 2002)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가 높은 아동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서경종, 1998; 유성은, 2002; 이경혜, 2002), 학교적응에서도 부정적(김경숙·조옥귀, 2004; 김명희, 2002; 김소현, 2000; 김춘희, 2000; 노미숙, 2003; 이지연, 2002; 송창용, 2003; 최영자, 2003; 한미라, 1997; Dubow & Tisak, 1989)이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성취도와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변혜종, 1990; 이성순, 2004)와, 친구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학교적응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보고(유선이, 1999; 황경미, 1998; Asher 등, 1990; Berndt & Ladd, 1989; Ladd 등, 1996)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업성취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들(오윤자, 2003; 이상필, 1990; 최순복, 1985)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국어와 수학의 두 과목의 시험점수로써 측정하였으므로, 그 외의 과목의 성취도나 아동의 직접적 수행을 통해 평가되는 학업성취 능력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들은 가정으로부터 또 학교나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2차 성징과 같은 신체 변화와 학업에 대한 점차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이 시기 아동들에게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동들이 학교환경을 편안하게 인식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즉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학교와 균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나아가 사회는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 시사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혹은 보다 조화로운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적 통제소재 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학교 내 전문적인 상담자가 이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일련의 교육 혹은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전효경, 2002)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련의 체계적인 훈련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처치·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이 학업성취에 대한 과중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지각하지 않도록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이 아동의 학습에 대해 조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바쁘게 생활하는 부모들은 아동들에게 학습에 대한 지원보다는 일방적인 강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학습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부모의 자녀가 학교나 학업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정에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학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학습활동에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참여하며, 자녀가 학습하기에 적합한 장소 및 학습자료를 마련하는 등 아동에 대한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학습지원에 대해 부모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아동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학교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개인체계와 가족체계, 친구체계 그리고 학교체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의 학교사회사업이 요구된다. 초등학교에서의 부적응은 이후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청소년기의 심각한 사회부적응과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과 그들의 부모,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의 생태체계를 기반으로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이 초등학교에서부터 활성화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권일현(2002). 자기효능감 및 내외통제소재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숙·조옥귀(2004). 도시와 농어촌 초등학생의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3),* 385-404.

김동배·권중돈(1998).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 학지사.

김명희(2002). 초등학생의 체벌경험, 학교스트레스, 학교부적응 행동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영(1998). 초등학교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선(1998). 초등학교 아동의 통제소재와 성역할 정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미(1994).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현(2000).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비행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순(2001). 가정환경변인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춘례(1992).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업성취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춘희(200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미숙(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연자(1995).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은식 · 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하영(2002). 학령기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및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과 외로움. *아동학회지, 23(3),* 51-63.

민하영 ·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박용식(1996).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 성적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혜종(1990).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경종(1998).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취 도와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소현 · 정영숙(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6(1),* 91-104.

송미원(1999).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창용(200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및 학교적응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윤자(2003).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통제소재,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7(2),* 315-330.

유선이(1999). 아동의 우정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성은(2002). 아동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 정도와 내외 통제소재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 · 민하영(2001). 시설보호 아동의 자아정체감 및 내적인 통제소재와 보육사가 평가한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97-109.

이경혜(2002). 학습우수아와 학습부진아의 스트레스 수준 및 학교생활 적응.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필(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순(2004). 초등학생의 과외학습과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묵(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 성원사.

이시은(1997).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주(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3),* 77-85.

이지연(2002).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와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욕구.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훈진(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호성(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효경(2002). 학교적응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여중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및 학습내적통제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병철(1993). 국민학생의 내외통제 성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유림(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순복(1985). 고교생의 지능, 학업성취와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자(200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증후와 학교적응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해수(200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대처행동의 관

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라(1997).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상희(1996). 성역할 정체감과 내외통제성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희련(2003). 학교부적응 아동의 유형별 행동특성과 그 원인.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ramovitch, H., Schreier, A., & Koren, N.(2000). American medical students in Israel : Stress and coping? a follow-up study. *Medical Education, 34(11),* 890-966.

Asher, S. R., Parkhurst, J. T. Hymel, S., & Williams, G.(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be, W. B.(1983). *The exceptional child.* New York :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Bentler, P. M., & Bonett, D. G.(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Berndt, T. J. & Ladd, G.(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Wiley.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Beverly Hills, CA : Sage.

Connell, J. P., Spencer, M. B., & Aber, J. L.(1995).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 Context, self, actions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 493-506.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Goswick, R. A., & Jones, W. H.(1981). Loneliness, self-concept, and adjustment. *Journal of Psychology, 107,* 237-240.

Gonzales, N. A., Tein, J., Sandler, I. N., & Friedman, R. J.(2001). On the llimits of coping :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coping for inner-cit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s Research, 16,* 372-395.

Grolnick, W. S., Kurowski, C. O., & Gurland, S. T. (1999). Family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34,* 3-14.

Hart, W. W., Hoffma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195-205.

Harter, S.(1996). Teacher and classmate influences on scholastic motivation, self-esteem, and level of voice in adolescents. In J. Juvonen & K. Wentzel (Eds.), *Social motivation :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pp.11-4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lly, T. L.(1939), Selection of upper and lower groups for validation of test item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 17-24.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9,* 5-59.

Pittman, N. L., & Pittman, T. S.(1979). Effects of amounts of helplessness training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on mood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47.

Wentzel, K. R.(1997). Student motivation in middle school : The role of perceived pedagogical car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411-419.

Werner, E. E., & Smith, R. S.(1992). *Overcoming the odds :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년 4월 30일 투고 : 2005년 7월 5일 채택